



국립암센터 심볼마크

생명력이 몹시 강하여 영하 30~40℃의 추위에도 푸른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만병초의 잎을 형상화, 암 환자들이 강한 의지로 병을 이겨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세계 최고의 암센터’ 를 약속하는

# 국립 암 센터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 암! 지금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18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매일 약 300여 명이 새로운 암 환자로 진단받고 있다. 그러나 암은 예방도 가능하고 초기 발견 시에는 치유도 가능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암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이용범 시설부 팀장(☞사진)을 만나보았다. 글 | 이미숙 협회 경영기획부 대리



## 국립암센터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국립암센터법(법률 제6149호)에 따라 국가에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6월 20일에 설립되었다.

“신 개념의 연구, 최상의 진료, 우수한 암 전문가 육성 및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여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거듭난다.”는 비전 아래, 국가 의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5대암 검진사업의 전 국민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지상 12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특히 국립암센터는 양성자 치료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양성자 치료기는 정상조직을 보호하면서 암 병소에만 방사선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암치료기로서, 국내에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암 관련 연구기반 강화 및 암 치료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암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최고의 소방시설 갖춰

병원동, 연구동, 양성자동, 행정동 등 지상 4개동 규모로서, 현재 양성자동 지상층에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신축 중인 국립암센터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건물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치료실 및 입원실, 사무실 등에는 아날로그 감자기를 설치하였으며, 의료장비 설치구역에는 청정소화약제 설비를 설치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



“신 개념의 연구, 최상의 진료,  
우수한 암 전문가 육성 및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여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거듭난다.”

고 있다. 또한 전 구역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 소화전,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CO<sub>2</sub> 소화설비 등을 소방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여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환자들에 대한 피난 대책 마련 중요

국립암센터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매달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금연운동은 국민을 압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통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벽, 천장 등 시설까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

이상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종합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론교육 보다는 실제 비상 시 사용될 수 있는 체험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 직원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피난대책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대피해야 할 환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피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병실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도를 부착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화재취약지구’를 선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 이외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암센터에서 특이한 점은 암센터 경내에서는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금연이며, 전 직원이 금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금연운동은 국민을 압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통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벽, 천장 등 시설까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라고 한다.



**화재예방의 생활화 필요**

18년간 안전관리 업무의 외길을 달려온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지부지하는 경향이 많다.”며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복잡화·심층

화 되고 있는 만큼 건물의 설계 및 시공, 소화·방화 설비 설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화재 예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지도와 초등학교 때부터 화재안전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회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위험진단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을 점검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그러나 소방 및 방재시설이 소방법과 건축법에 의해 시공되고 소방시설의 인·허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화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암 환자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립암센터!

머지않아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켜준은 물론, 암이 ‘치료하기 어렵고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금의 감기 수준으로 느낄 수 있는

희망의 날이 오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